

도,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 확정

먹거리위원회 심의·의결... 공공급식·복지·교육·환경 연계한 전북형 먹거리 정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전략과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지역공공먹거리 정보체계 구축 등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26년 먹거리 시행계획'은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수립한 통합계획으로, 6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 67개 세부사업에 총 1,924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급식·복지·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전북형 먹거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14개 시군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및 14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운영하고,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 71%를 유지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농식품 바우처 분사업도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생산·유통·복지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했다.

2026년에는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수급관리 체계 강화 △공공급식 중심 지역먹거리 소비 확대 △도민 식생활 돌봄 확대 △미래세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탄소중립 급식 실천에 집중한다. 품목·원산지·발주처 등 데이터 입력 기준을 표준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거래 실적 등록을 의무화해 공급 현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6년 시행계획은 지역먹거리 기반을 더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먹거리 안정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 민간이 협력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5일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회의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해야”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촉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신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다음날 새만금 33선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

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은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현재 급증한 지방재정 규모와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

문 의장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시 42조 6천억원이던 지방예산 규모가 2026년 현재 326조원으로 30년간 약 7.7배 증가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건수도 2002년 232건에서 2024년 2,738건으로 1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제출·의결 기한은 예산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및 행정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긴 심의 기간이 필요한 물론, 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관련 제도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입법 추진 본격 | 국회서 공개 토론회... 정청래 대표 "반드시 실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며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윤준병·안호영·강준현·민형배·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정청래 당대표와 여야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동학 관련 단체 및 유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반외세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입법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의원들도 우금치·황토현·심혜 등 지역의 역사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에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유규 동학서훈연계 상임대표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무장 항거가 국권 수호 성격의 항일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훈 정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심사 기준 마련, 국가보훈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차 참여자 서훈을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윤준병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본 침략 시점 규정이 불명확해 동학농민군의 항일 투쟁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향후 입법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만호기자·정음=김대환기자

전북자치도-익산시, 팜조아와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2026년까지 익산 제4산단 100억원 추가 투자·30명 신규 고용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 투자 확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25일 도청회의실에서 (주)팜조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 황은경 (주)팜조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팜조아는 증가하는 생산 물량과 유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익산 제4산단에 3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팜조아는 냉동 밀키트와 리얼 스무디 키트, 냉동 채소 등 간편조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기업이다. 소비 흐름에 맞춘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코스트코·이마트·롯데마트·트레이더스·쿠팡·마켓컬리 등 국내 주요 대형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해 시장 신뢰도를 높여왔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캐나다·호주·홍콩 등 수출을 통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며, 2026년 수출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1차 투자에 이어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주)팜조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 황은경 (주)팜조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성과"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생명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혁신적인 기술로 농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팜조아가 익

산에 투자를 확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기회가 되는 익산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훈기자

도 보건연, 새학기 앞두고 호흡기 감염병 확산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집단생활이 본격화함에 따라 학령기 아동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1~8주차 도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전체 검출률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리노바이러스(약 20%)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약 14%)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2주차까지 A형이 우세했으나, 3주차부터 B형이 우세하기 시작해 8주차에는 모두 B형으로 검출되어 유행의 중심이 A형에서 B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연령대별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 18~49세가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7~12세가 23.5%, 0~6세가 18.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및 영유아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개학 이후 또래 간 접촉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연구원은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학령기 아동은 집단생활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도내 학생들의 심신 건강 증진과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총 12억8,000만원을 투입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10회, 총 32만인 상당(자부담 포함)의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부모는 말산업정보포털 사이트인 호스피아(www.hosepi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도내 승마장에서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美 록세디움과 새만금 헴프산업 투자 협의

미 관계자 도청 방문... 새만금 내 투자·기술 협력 방안 머리맞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글로벌 헴프 기업 록세디움(Luxedum Inc.)과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 협의에 나섰다.

도는 25일 글로벌 헴프(Hemp) 및 스마트농업 선도 기업인 록세디움(Luxedum Inc.)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내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측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둔 사전 협의 성격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제이콥 홀리(Jacob Hawley)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이 참석해 새만금 사업 여건과 단계적 투자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방문단은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봤다.

2017년 설립된 Luxedum Inc.는 헴프 유전자 연구와 CBD(칸비디올) 치료

제 개발을 비롯해 AI(인공지능), 웹3 기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결합한 플랫폼형 글로벌 기업이다. 북미와 유럽, 중동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 아델라토와 어비안에서 운영 중인 밀폐형 스마트팜은 고도화된 생산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록세디움 측은 △스마트팜 기반 고품질 헴프 재배 및 가공시설 구축 △CBD 기반 식품·음료 수출 전초기지 조성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등 단계적 투자 구상을 제시했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물류 접근성, 정책적 지원 체계가 투자에 적합하다는 점에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콥 홀리 대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만금을 아시아 핵심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규 공급업체 모집

제13차 답례품선정위원회 결과 반영... 12개 품목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대상은 지난 24일 개최된 '전북고향사랑기부제 제13차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12개 답례품목인 돼지고기, 만감류, 조기, 포도, 닭가슴살, 반려견 간식, 소금류, 순대국밥, 오리훈제, 우리밀가공식품, 찜빵리면, 홍삼이다.

참여 자격은 농축수산물인 경우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제품이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원재료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선정된 공급업체에는 오는 2028년 7월까지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최종 선정 시 전국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답례품 공급을 통해 제품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뒤 전북도청 대외협력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2일부터 16일이다. /이만호 기자